



## 구약성서의 인명 변화에 대한 연구

강후구(서울장신대)

### 1. 서론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sup>1</sup> 구약성서 또한 이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sup>2</sup> 특정 사건과 인물과 연결되어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으며(신명), 장소의 이름이 강조되어(지명) 어떤 사건이 일어나 그 사건의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예를 들어, 아이수 8:28, 브라가 골짜기-대하 20:26), 어떤 기념물을 세우게 되어 지명이 되기도 한다(예를 들어, 라헬의 묘비-창 35:20, 압살롬의 묘비-삼하 18:18). 사람의 이름(인명)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

---

1 유윤중, “출애굽기 1:1-15:21에 나타난 이름의 문학적 및 신학적 의미”, 『성경원문연구』 41 (2017): 7-8.  
2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이름은 신명, 인명, 지명, 서명이 등장한다. MT 사본에서는 인명이나 지명을 강조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책명은 그다지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지 않다 (민영진, “구약 각 책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원문연구』 34(2014), 55-82. 참조).

되어 나타난다. 이른바 구원사는 이름을 뜻하는 썸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며,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중요한 사건 때 변경시키며 (아브람-아브라함, 사래-사라, 야곱-이스라엘), 이러한 이름은 그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보여준다.

사람의 이름은 구별과 식별의 기능뿐만 아니라<sup>3</sup> 다양한 정보와 의미를 제공한다. 이름 자체가 개인의 표식인 동시에 그 사람이 속한 민족 또는 나라/국가를 나타내기도 하고,<sup>4</sup>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출신을 드러내기도 하며,<sup>5</sup> 역사적 정황을 반영하기도 한다.<sup>6</sup> 인명의 빈도수나 분포를 분석하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과 연관되기도 한다.<sup>7</sup> 또한 이름은 일반적으로 부모나 조부모 혹은 그 이름은 지은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바의 뜻을 담아 짓기 때문에 그 사회의 문화심리적 세태를 반영하게 되는데,<sup>8</sup> 이는 신앙을 포함하며,<sup>9</sup> 이름의 변화나 차이점은 신앙의 차이 또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경향을 구약성서의 이름 분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명 변화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3 유윤종, *윗글*, 7.

4 이정선,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이름 정책과 이름의 변화 양상들” 『역사민속학』 49(2015): 89., M.R. Golub, “Ethnic Characteristics in Theophoric Personal Names Found in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Land of Israel during the First Temple Period”, *Language Studies* 16 (2015): 101.

5 남풍현, “한국인의 이름의 변천”, 『새국어생활』 1-1(1991): 57-75.

6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강제로 시행하였다가 말기에는 일본인과의 구별성과 가족 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일본인풍 성명 개칭을 막았던 예가 그러하다(이정선, 윗글, 103-104).

7 박건숙, “사람 이름의 의미 자질 연구”, 『한국어 의미학』 37(2012): 163-166.

8 마영미, “이름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중국조선어문』 6(2010): 11.

9 그 한 예로, 한국과 중국의 연변조선족 자녀들의 이름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은 가장 많은 예(51.6%)가 자녀들의 이름에 신앙이 반영된 것으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살기를 기대하여 성경의 단어들 또는 인물들을 따라 작명하였고, 중국 연변조선족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기원하거나(30.6%), 학업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하는(29%) 이유로 작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같은 글, 12-13).

10 한국인의 이름 가운데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소수이지만, 기독교가 전래 된 이후 세례명을 쓰는 경우가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남풍현, 윗글, 68-75). 위 각주 7번에서 보여주듯이 한국인은 신앙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근거하여 작명하지만, 중국인의 경우 신앙적 기대로 작명한 경우는 매우 소수로서(1.6%), 이는 중국에서의 종교의 파급 범위가 적고 그 깊이가 낮다는 것을 반영한다(마영미, 윗글, 12).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명 가운데 야웨/야하웨<sup>11</sup> 또는 엘로힘의 신명이 들어간 이름들이 언제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떠한가, 그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야웨 신명(요-, 여호-, 야-, 야후)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전통은 야곱의 열 두 아들을 이어 모세까지 이어지게 된다. 열 두 사사 가운데 야웨의 이름을 포함한 이는 한 명도 없으며, 초기 왕들,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등의 이름에서 그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반하여 엘로힘의 이름을 지닌 이름들은(‘엘’로 시작하거나(엘-), ‘엘’로 끝을 맺는(-엘) 이름들) 창세기에서부터 발견되어 이러한 변화를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생성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최근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고대 인명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아래 제 3장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선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명의 변화, 즉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인명의 변화를 조사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으로 율법서, 신명기 역사서, 에스라-느헤미야서에 언급된 인명을 분석할 것이다.<sup>12</sup>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고학적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도장, 인장, 비문 등에서 알려진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인명의 시대적 변화를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명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명 변화가 고고학적 인명의 변화와 상응하는지 파악하여, 그 변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최근 권성달은 야웨의 정확한 발음이 야하웨였음을 주장하였다(권성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바로 알기”, 『성경과 이스라엘』 12호(2021): 12-16).

12 본 연구가 통시적으로 인명의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초기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율법서, 정착 시대부터 왕국 말기까지 기술하는 신명기 역사서, 바벨론 포로 이후 역사를 기술하는 에스라-느헤미야서를 분석한다. 바벨론 포로 시기의 대표적 역사서인 역대기가 있으나 이 역사서의 내용은 이전 시기의 것과 중복된 내용이 있어 각 시대의 특징 비교 분석을 위해서 제외한다.

## 2. 구약성서의 인명 연구

### 1) 연구사

성경의 인명 연구는 비교적 일찍부터 행하여 졌다.<sup>13</sup> 1896년 만델케른은 인명과 지명의 사전을 출판하였고, 이후 그레이(G.B. Gray), 노트(M. Noth), 로울리(H.H. Rowley)은 성경의 인명에 집중하여 인명이 언급된 성경의 언급된 구절 분석과 지파 관계 분석의 연구가 이루어진 단행본을 출판하였다.<sup>14</sup> 이후 여성의 이름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연구가 행해졌다.<sup>15</sup>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명 자체에 대한 분석 연구가 행해졌는데, 예를 들어, 알버츠(R. Albertz)는 인명 분석을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 종교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sup>16</sup> 1980년대에 구약성서의 인명 연구의 발전이 이루어져, 인명 연구에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적 자료를 포함시켰고,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와 연관된 것으로 인명에 포함된 신명 요소를 분석하였다. 티게이(J.H. Tigay)는 포로 시대 이전의 인명 연구를 통하여 다신교 연구에 활용하였고,<sup>17</sup> 파울러(J.D. Fowler)는 시대를 구분하여 (왕정 이전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시대-) 신명 요

---

13 그 연구사는 최근 골루브가 잘 정리해 주었다. M.R. Golub, 2014,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Names in Israel and Transjordan during the Iron II', *JAOS* 134:4(2014), 621-23.

14 S. Mandelkern, *Veteris Testamenti Concordantiae Hebraicae atque Chaldaicae*, 9th ed. (Jerusalem-Tel Aviv: Schocken, 1972)., G.B. Gray, *Studies in Hebrew Proper Names* (London: A. and C. Black, 1896)., M. Noth, *Die Israelitischen Personennamen im Rahmen der Gemeinsemitischen Namengebung* (Stuttgart: Kohlhammer, 1928)., H.H. Rowley, *Short Dictionary of Bible Names* (New York: Basic Books, 1968).

15 R. Odelain and R. Segineau, *Dictionary of Proper Names and Places in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1981).

16 R. Albertz, *Persönliche Frömmigkeit und offizielle Religion: Religionsinterner Pluralismus in Israel und Babylon* (Stuttgart: Calwer Verlag, 1978). 이러한 분석 시도는 최근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성경 인명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남녀 공통으로 사용된 이름들의 분포와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H. Barry III. and J.J. Jackson, "Names in the Bible", *Names* 55, 4(2007): 372-378을 보라.

17 J.H. Tigay,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Israelite Religion in the Light of Hebrew Inscriptions* (Atlanta: Scholars Press, 1986).

소와 문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명들을 시대별로 범주화하였다.<sup>18</sup> 사독(R. Zadok)은 썬기문자, 알파벳 문자를 포함하여 헬라 시대 이전 이스라엘인들의 인명들을 연구하였다. 그는 파올리와 동일하게 시대를 구분하였으나 왕정 이전 시대를 더욱 세분하였다.<sup>19</sup>

레이톤(S.C. Rayton)은 성경의 가나안인 이름의 고대 특성을 연구하였으며,<sup>20</sup> 앤더슨(F.I. Andersen)과 헤스(R.S. Hess)는 성경의 저자와 구성 분석을 위하여 인명 연구가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성서의 야웨 요소(-야후, -야, 요-)를 고문서학적 기록물의 것과 비교하면서 인명이 성경의 역사 문서의 기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이후 성경에 알려진 이름과 성경 외적 자료에 추가적으로 알려진 이름을 더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행하여졌고<sup>22</sup>, 이를 통하여 성경에 언급된 이름 가운데 역사 자료, 고고학 자료에 알려진 이름들이 확인되었다.<sup>23</sup> 이러한 연구

18 J.D. Fowler, *Theophoric Personal Names in Ancient Hebrew: A Comparative Study*. (Sheffield: JSOT, 1988).

19 그는 족장시대(광야, 정착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기 시대- 포로기 이후 시대로 구분하였다. R. Zadok, *The Pre-Hellenistic Israelite Anthroponymy and Prosopography* (Leuven: Peeters, 1988).

20 S.C. Layton, *Archaic Features of Canaanite Personal Names in the Hebrew Bible* (Atlanta: Scholars Press, 1990).

21 F.I. Andersen and R.S. Hess, *Names in the Study of Biblical History: David, Yhwh Names, and the Role of Personal Names* (Melbourne: Australian Institute of Archaeology, 2007).

22 David J.A. Clines, (ed.)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IX.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16), 488-834. 클라인즈는 히브리어로 된 인명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방대한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목록에서 그는 구약성서, 벤시라서, 쿠파란 사본, 고고학적 발견물로 나누어서 인명을 각 자료에 나타난 빈도수, 남성/여성 구분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인즈는 인명이 지명 또는 나라 또는 민족을 뜻하는 것과 구분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 미스라임-애굽), 인명이 국명과 같은 경우 구분하지 않았다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 유다) 한계를 지니고 있다.

23 L. Mykytiuk, "Archaeology Confirms 50 Real People in the Bible," *BAR* 40/2(2014), *idem.*, "Archaeology Confirms 3 More Bible People," *BAR* 43,3(2017): 48-52., M.R. Golub, *윗글*(2014), 621-42., *idem.*, "The Element šlm in Hebrew Personal Names in the Land of Israel during the Iron Age II: Archaeological and Biblical Sources", *VT* 65(2015), 567-87., *idem.*, "Israelite and Judean Theophoric Personal Names in the Hebrew Bible in the Light of the Archaeological Evidence," *ANES* 54(2017), 35-46.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알려진 이름들이 계속적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4</sup>

한편 국내의 성경 인명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미미하게 이루어졌다. 2016년 이보림은 성경에 언급된 이름 가운데 아담부터 열두 지파까지 이르는 대표적 이름의 자음을 분석하였고 히브리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번역하면서 사라지는 원어의 의미를 각주를 통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sup>25</sup> 최근 유윤종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들을 파악하고자 공시적 방법으로 출애굽기 서두 부분(1:1-15:21)에 등장한 이름의 신학적 문학적 특성을 고찰하였다.<sup>26</sup> 구약성서의 명단에 대한 분석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sup>27</sup>

---

24 P. K. McCarter, S. Bunimovitz and Z. Lederman, "An Archaic Ba'l Inscription from Tel Beth-Shemesh", *TA* 38(2011), 179-193, S. Ahituv and A. Mazar, "The Inscriptions from Tel Rehov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Script and Writing during Iron Age IIA", Pp. 36-68, 189-203 in E. Eshel, *See, I Will Bring a Scroll Recounting What Befell Me' (PS 40-8) : Epigraphy and Daily Life from the Bible to the Talmud. Dedicated to the Memory of Professor Hanan Eshel* (Vandenhoeck & Ruprecht GmbH & Co KGM, 2014), Y. Garfinkel, M.R. Golub, H. Misgav and S. Ganor. "The 'Išba'al Inscription from Khirbet Qeiyafa", *BASOR* 373(2015), 217-33, M. G. Klingbeil, M. G. Hasel, Y. Garfinkel, and N. H. Petruk, "Four Judean Bullae from the 2014 Season at Tel Lachish", *BASOR* 381(2019): 41-56., R. Tercatin, "3,000-year-old inscription bearing name of biblical judge found in Israel. 출처: <https://www.jpost.com/archaeology/3000-year-old-inscription-bearing-name-of-biblical-judge-found-in-israel-673576>(2021년 7월 12일 접속), R. Schuster, "Proto-Canaanite Inscription Found in Israel Has Experts Squabbling Over Its Meaning". 출처: <https://www.haaretz.com/archaeology/experts-spar-over-what-the-jerubbaal-inscription-really-says-1.10033477?fbclid=IwAR2i5S-fia-A93MTu4lKgKyq4IbuFr2VMii-WOoFREa0B3htt2mOjtbStf1g>(2021년 8월 2일 접속).

25 이보림, "히브리어 성서의 인명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3) (2016): 373-393. 이러한 인명의 번역에 관한 연구는 외국연구에서도 보여지고 있다.N.A, Bailey, *Proper Names in the Bible: Translation and Transliteration Issues* (Word & Deed, 2007), 1-21.

26 유윤종, 윗글, 7-28.

27 줄저, 강후구, "성경의 인명에 대한 고찰", 『성경과 이스라엘』 제13호 가을 (2021): 8-13.

## 2) 구약성서 인명 분석

### (1) 일반적 특징

구약성서에는 2,670개의 인명이 등장한다.<sup>28</sup> 이 가운데 수백 개의 이름은 동일한 이름이 여러 명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이름을 10명이 넘는 인물이 사용하고 있다.<sup>29</sup> 따라서, 중복된 이름을 제외하면 구약성서에는 1,676개의 인명이 언급되었다.<sup>30</sup> 이를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이 90%가 넘고, 반대로 여성은 10%가 되지 않는데 시대별로 이 비율의 차이가 나타난다.<sup>31</sup> 구약성서의 몇 개의 이름은 그 자체로 성구별이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 16개의 이름은 남녀 성 구분 없이 남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sup>32</sup>

성경에서 한 번만 언급된 이름은 총 647명이며 이중 여성은 30명을 차지하며, 성경에서 한 번만 언급된 이들 중 대부분(약 90%, 583명)은 성경 외적 자료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sup>33</sup> 구약성서에 언급된 인명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다윗이며 총 1,023회 언급되었다. 이외에 모세 762회, 사

28 N.A. Bailey, *윗글*, 1.

29 H. Barry III and J.J. Jackson, *윗글*, 373.

30 David J.A. Clines, *윗글*.

31 H. Barry III and J.J. Jackson, *윗글*, 372-378. 여성의 이름이 적게 언급된 것은 구약 시대의 남성 중심 사회구조와 전쟁, 권력 행정, 공중 예배 또는 제의 활동 등의 구약성서의 기술 내용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같은 글, 373). 이 비율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래 2.2), (3), 참조.

32 아비하일(여성: 대상 2:29, 대하 11:18. 남성: 민 3:35, 대상 5:14, 예 2:15), 아비아(남성: 삼상 8:2, 대상 7:8, 왕상 14:1, 대상 24:10, 느 10:18, 대하 11:20. 여성: 대하 29:1-왕하 18:2에서는 아비로 소개되고 있다), 아달라(여성: 왕하 14:31 등, 남성: 대상 8:26, 스 8:7), 에바(남성: 창 25:4, 대상 2:47. 여성: 대상 2:46), 고멜(남성: 창 10:2, 여성: 호 1:3), 후심(남성: 창 46:23. 여성: 대상 8:8), 마이가(남성: 창 22:24, 왕상 2:39, 삼상 27:2, 대상 11:43, 대상 27:16. 여성: 삼하 3:3, 왕상 15:2, 대상 2:48, 대상 7:15-16, 대상 9:35), 브헤다벨(남성: 느 6:10. 여성: 창 36:39), 노아디아(남성: 스 8:33. 여성: 느 6:14), 답나(남성: 창 36:40, 대상 1:36. 여성: 창 36:12, 창 36:22), 탈라(민 26:33, 대상 7:18), 오홀리바마(창 36:2, 창 36:41), 슬로밋(레 24:11, 대상 3:19, 스 8:10, 대상 23:189, 대하 11:20), 노아(창 5:29 등; 민 26:33), 부아(출 1:15, 삿 10:1), 수아(창 38:2, 대상 7:32). H. Barry III and J.J. Jackson, *윗글*, 374-375.

33 David J.A. Clines, *윗글*, 488-834에 언급된 2114명 참조.

울 394회, 아굽/이스라엘 393회, 아론 347회, 솔로몬 293회, 아브람/아브라함 236회, 여호수아 218회 순으로 언급된 모습을 보여준다. 구약성서에서 100회 이상 언급된 이들은 모두 13명이고,<sup>34</sup> 이들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국과 관련된 이들 중 왕이던지, 제사장, 예언자이던지 한 명도 없으며, 또한 여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다.<sup>35</sup> 이는 구약성서가 남유다 중심, 남성 중심으로 기술되었음을 반증하는 예가 될 수 있다.

인명의 언급 빈도수 분석에서 의미 있는 것은 100회 이상 언급된 이들 13명의 언급 횟수를 모든 언급을 다 합친 것(4,275회)보다 야웨 언급(6,828회)이 더 많다. 이는 구약성서 자체가 인간 중심으로 기술된 것이기보다는 야웨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가리킨다. 한편, 구약성경에서 많이 언급된 위대한 이들의 이름 대부분이 후대의 어떠한 인물도 이들의 이름을 따라 자녀의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 특징, 이른바 위대한 인물 이름 기피 현상이 또한 발견된다.<sup>36</sup>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성 또는 중간 이름이 없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백 개의 이름이 서로 다른 인물들에게 사용한 경우가 구약성서에서도 발견되지만, 동일한 이름이 여러 명에게 불려질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독특성을 부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족 내에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특징을 보여준다.<sup>37</sup> 이는 고

34 아브람/아브라함(236회), 이삭(112회), 아굽/이스라엘(393회), 요셉(193회), 모세(762회), 아론(347회), 사울(394회), 다윗(1023회), 요압(142회), 압살롬(111회), 솔로몬(293회), 히스기야(125회), 에레미야(144회).

35 여성 인명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인명은 에스더로서 55회 언급되었다. 이 외에 사라 38회, 레아 34회, 리브가 30회 언급되었다.

36 다윗, 사울을 제외하고 300회 이상 많이 언급된 이름들은 후대에 어떤 인물도 동일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다윗의 이름은 에스라서에 한 번 언급되었다(스 8:2). 사울의 이름을 가진 이중 많이 언급된 인물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몇 명의 사울을 소개하고 있다(창 36:37-38 (=대상 1:48-49), 46:10, 출 6:15 (=대상 4:24-25), 민 26:13).

37 한국의 작명 원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피휘법이 적용된다(이복규, “한국인의 이름에 대하여”, 『은지학회』 16(2007): 366-369).



대 근동 지역에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아들 또는 손자에게 지칭하는 문화와 구별된다.<sup>38</sup>

## (2) 신명을 담지한 인명들- 이방 신명을 포함한 인명들

구약성서에 언급된 인명 가운데 신명 요소를 내포한 이름들이 발견된다. 야웨 신앙에 입각한 요소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방 신들의 이름을 담고 있기도 하는데, 다음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구약성서 내 가나안의 대표적 신 바알을 담지한 인명들이 소수이지만 발견되는데,<sup>39</sup> 바알을 담지한 이방인들의 이름을 제외하면<sup>40</sup>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바알의 이름을 담지한 이들은 모두 주전 10세기 이전의 역사적 상황에서만 발견된다.<sup>41</sup> 지금까지 고고학적 도장, 인장, 진흙인장, 비문 등을 통하여 알려진 700여 개의 이름 가운데 바알이라는 이름을 지닌 비문은 총 20개로서<sup>42</sup> 유다 지역에서는 주전 10세기 이후의 층위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반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주전 8세기 층위들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바알 신명이 들어간 인명으로 볼 때, 유다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은 구약성서의 언급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바알 이외의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담지한 이름들은 매우 소수로 알

38 H. Barry III and J.J. Jackson, *윗글*, 377.

39 바알하난 (창 36:38, 36:39, 대상 1:49, 1:50, 27:28), 여룹바알 (삿 6:32, 7:1, 7:8, 7:29, 8:35, 9:1, 9:2, 9:5, 9:16, 9:19, 9:24, 9:28, 9:57, 삼상 12:11), 바알 (대상 5:5, 8:30, 9:36), 에스바알 (대상 8:33, 9:39), 트랍바알 (대상 8:34, 9:40).

40 주전 9세기경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가 옛바알로 소개하고 있다 (왕상 16:31).

41 최근 바알을 내포한 이름이 기록된 비문들이 발견되고 있다. 하나는 벤세메스에서 발견된 것으로 주전 11세기 층위에서 발견된 것이며(McCarter et al., *윗글*), 둘째로, 주전 10세기 초의 것으로 여겨지는 키르벳 케이아파(Garfinkel et al., *윗글*(2015)), 또 다른 하나는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것으로 키르벳 에르-라이의 주전 1100년 초기 철기 시대 지층에서 발견되었다 (R. Tercatin, *윗글*; R. Schuster, *윗글*, 참조).

42 북이스라엘 10개, 블레셋 6개, 유다 2개, 페니키아 1개, 암몬 1개. Golub의 연구에 따르면 19개이지만 (M.R. Golub, 2021, *Onomasticon.net: Personal Names from the Iron II Southern Levant*, <http://www.onomasticon.net>, 2021년 8월 17일 접속), 최근 유다 지역에서 발견되어 총 20개이다.

려졌다. 아비얌은 ‘나의 아버지는 바다/바다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나의 아버지는 암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때 암은 우가릿 신화에서 잘 알려진 가나안의 신-바다의 신<sup>43</sup>으로 이해된다. 또한, 인명가운데 -모트(מֹוֹת)를 담지한 이름들은 아마도 가나안의 모트 신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된다. 성경에 나타난 이름으로 아히모트(아히못, 대상 6:25), 여리모트(여리못, 대상 7:7, 12:5, 24:30, 25:4, 대하 11:18, 31:13), 여레모트(여레못, 대상 7:8, 8:14, 23:23, 25:22, 27:19, 스 10:26, 10:27, 10:29), 브레모트(브레못, 스 8:33, 10:36, 느 3:4, 3:21, 10:5, 10:23)가 있다.

셋째, 인명 가운데 -후르(חֹר)를 담지한 이름들은 아마도 이집트의 신 호루스(Horus)를 담지한 것으로 이해된다: 후르(홀, 출 17:10, 17:12, 24:14, 31:2, 35:30, 38:22, 수 13:21, 대상 2:19, 2:20, 2:50, 4:1, 4:4, 대하 1:5), 후리(대상 5:11), 후래(대상 11:32), 벤-후르(벤홀, 왕상 4:8), 하르후르(할홀, 스 2:51, 느 7:53), 바스홀(대상 9:12, 스 2:38, 10:22, 느 7:41, 10:3, 11:12, 렘 20:1, 20:2, 20:3, 20:6, 21:1, 38:1).

넷째, 인명가운데 -코스(כֹּס)를 담지한 이름들은 아마도 에돔신 코스/쿠스 신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된다: 바르코스(바르코스, 스 2:53, 느 7:55).

다섯째, 인명가운데 모르드카이(모르드개 מֹרְדֵכַי, 스 2:2, 느 7:7, 에 2:5-10:3까지 61회)는 바벨론 신 마르둑의 이름과 연관된 것이다.<sup>44</sup>

### (3) 구약성서의 인명- 야웨/엘로힘 신명 요소에 따른 구분

동명이인의 수를 배제한 구약성서의 1,676개의 이름 가운데 야웨 신앙에 따른 신명을 내포한 이름들은 총 335개가 발견된다. 이 이름들 가운데 동일

43 암은 우가릿 신화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종종 “용”, “로탄”, “라빔”, “과도” 등 여러 형상을 가진 괴물로 현현한다. 바알의 다른 적들처럼 암도 “엘의 사랑”이라 불리운다. (데이비드 마이클 쿨건, 「우가릿 신화의 세계」 (유선명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2), 158.

44 David J.A. Clines. “Mordecai” in *ABD* Vol. 4(1990): 903.

한 이름을 사용한 이들이 있기에 사람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비율로 분석해 본다면 구약성서의 각기 다른 이름 중 약 20%(19.9%)가 야웨 신앙과 관련된 신명을 포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은 구약성서 인명 가운데 신명 요소를 지닌 335개의 이름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sup>45</sup> 고유명사 야웨의 이름을 인명에 적용한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으며(요-, 여호-, -야, -야후), 하나님의 일반 명사 엘로힘을 인명에 적용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엘, 엘-). 이들을 나누어 분석해 보면 요-로 시작하는 이름은 28개(8.4%), 여호-로 시작하는 이름은 20개(6%), -야로 끝을 맺는 이름은 112개(33.5%), -야후로 끝을 맺는 이름은 45개(13.5%) 발견된다. 한편 -엘로 끝을 맺는 이름은 86개(25.7%), 엘-로 시작하는 이름은 43개(12.9%)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신명만을 보았을 때, 야웨 고유명사를 담지한 이름이 일반 명사 엘로힘을 담지한 것보다 더 많이 발견된다(205개(61.4%) vs. 129개(38.6%).

이와 같은 현상이 구약성서 전체에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약성서의 모든 인명을 다루지 않고 주목적인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인명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나안 정착 이전 시대 (창세기~신명기: 율법서), 가나안 정착 이후-왕정 말기 시대 (여호수아~열왕기하: 신명기 역사서), 포로후 시대 (에스라~느헤미야: 역대기 역사서)로 나누어 인명을 분석하고자 한다.

---

45 이는 자체로 인명수를 의미한다. 동일한 이름을 지닌 인물들은 하나로 통일하여 계수한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인명에 따른 사람들의 분포라기 보다는 비율에 강조점을 둔다. 한편 야웨 신명과 엘로힘 신명 이외에도 인명에 신적 애칭을 담지한 경우들도 포함시킬 수 있으나(Golub, 윗글(2014)),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표 1. 구약성서의 신명을 포함한 이름 수 (David, J.A. Clines 2016)

신명	신명 구분						
	יהוה				אלהים		
신명 접두어/ 접미어	יְ-	יְהוֹ-	יְהִ-	יְהוּ	יִי	-אֱל־	-אֱל
빈도수	28(8.4%)	20(6%)	112(33.4%)	45(13.4%)	1(0.3%)	43(12.8%)	86(25.7%)
소계	206(61.5%)				129(38.5%)		
합계	335(100%)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총 602명의 인명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 모든 책에 언급된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유일하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는 창세기 이후 계속적으로 언급되어 언약이 상기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창세기는 336명, 출애굽기는 72명(창세기에서 언급된 이들 29명), 레위기 14명(앞서 언급된 이들 12명), 민수기 211명(앞서 언급된 이들 90명), 신명기 24명(앞서 언급된 이들 24명)이 언급되고 있다. 가장 적은 수의 인명이 제시된 책은 레위기이며, 그 다음은 신명기이다. 신명기에 언급된 이들은 모두 이전 책들에서 언급되어 말 그대로 두 번째 율법으로서, 앞서 일어난 사건/말씀과 연관된 이들의 이름을 재차 언급하고 있다. 이는 언급된 인명의 특징이 신명기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율법서에서 언급된 602명 가운데 중복된 이를 제외한 이는 총 502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이 39명이고 나머지 463명은 모두 남성이다. 이는 구약

성서에선 언급된 인명 가운데 여성이 약 10% 차지하는 전체 값보다 더 낮은 수치로(7.8%) 여성이 언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일반적 사실과 함께 남성 중심의 족보가 많이 소개되고 있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된다.

넷째, 율법서에서 언급된 602명 가운데 27명이 왕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8명이 제사장으로, 6명이 선지자 또는 선지자 역할을 한 이로 소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1명은 왕이자 제사장으로 소개된다.

다섯째, 율법서에서 언급된 602명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이는 오직 요게벳(출 6:20)과 여호수아(출 17:9)뿐이다. 야웨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하는 형태<sup>46</sup>는 이후 살펴볼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흔하게 발견되지만, 율법서에서 야웨 신명을 포함한 이름이 오직 요게벳과 여호수아에게서만 발견된다는 점은 매우 큰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창세기에서 신명 야웨를 포함하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야웨의 이름이 이미 창세기 2장 4절에서 소개되고 있고 4장 26절에서는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336개의 이름 가운데 야웨 신명을 배태하고 있는 인명은 한 명도 없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과 후대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기원이 되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도 야웨 신명을 담고 있는 이가 없다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반 명사인 엘로힘과 관련된 이름도 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전통의 남성 인명은 모세까지 이어졌고 모세 이후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을 포함하여 어떠한 지도자들도 야웨 신명이 포함된 이름을 갖고 있지않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

46 요아스, 요나단, 여호사밧 등 요- 또는 여호-로 시작하는 인명, 스가라, 히스기야 등 -야 또는 -야후로 끝을 맺는 이름이다.

신명기 역사서로 알려진 책들 가운데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하까지 언급된 인명은 총 596개로서 율법서에서 언급되거나 중복 언급된 이름을 제하면 새로운 이름은 468개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여호수아서에서 언급된 68명 가운데 율법서에서 언급되었던 이름은 59개로(약 87%) 새롭게 등장한 이름은 19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여호수아서의 기술이 이전 역사와 연관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인명을 바탕으로 신명기 역사서와 율법서를 연관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후 책들에서는 재차 언급되는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사사기에서는 22명(총 63명, 약 35%), 사무엘상은 11명(총 72명, 약 15%), 사무엘하 6명(총 141명, 약 4%), 열왕기상 42명(총 135명, 약 31%), 열왕기하 1명(총 117명, 약 1%)이다. 이는 역사 기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둘째,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하까지 언급된 인명은 중복된 이름을 제외하면 총 468개이다. 이 가운데 언급된 남성의 이름은 425개, 여성의 이름은 재차 언급된 이들을 제외하면 총 43개로 약 9%를 차지한다. 이는 율법서보다 좀 더 증가한 숫자이지만 여전히 미미한 숫자로 여성의 이름이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신명기 역사서에서 언급된 제사장 이름은 총 14개이며, 선지자는 총 11개가 언급되었다. 이 가운데 1명은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다. 반면 왕들은 이방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을 합쳐 총 79명이 언급되었다. 신명기 역사서는 사회학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왕들 중심의 역사 서술임을 보여준다.

넷째, 42명의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 가운데 야웨 신명이 들어간 이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총 6명으로 아합 이후 즉 주전 9세기 중반인 아하시야왕 때부터 나타나며, 남유다 왕국에서는 그보다 조금 일찍 주전 10세기 말경인

아비아/아비얌 시대부터 야웨 신명을 지닌 왕들이 등장하여 총 15명에서 발견된다(cf. 솔로몬-여디다야).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왕들의 이름에 야웨 신명을 지닌 것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2.5배).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 요시아부터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모든 왕들이(요시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들의 이름에 야웨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다섯째,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도 율법서와 같이 야웨 신명을 내포하고 있는 인명은 드물게 사용된다. 새롭게 언급된 이름 60명 가운데 단지 세 명만이 야웨 신명을 내포한 이름을 지니고 모두 사사기에서만 나타난다(요아스-6:11, 요담-9:5, 미가-17:1). 사무엘서부터는 야웨 신명을 지닌 이의 이름이 확대되어 나타나다가(사무엘상하에서 재차 언급된 이를 제외하고 20명) 열왕기에서는 정점을 이룬다(열왕기상하에서 재차 언급된 이를 제외하고 64명). 이는 점차 왕국 말기로 가면서 야웨 신명을 띤 이름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멸망하기 직전 다섯 명의 왕들이 모두 야웨 신명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또 다른 한편으로 고고학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 즉, 주전 7세기-6세기 초에 야웨 하나님과 관련되어, 요로 시작하거나 -야후 또는 -야로 끝나는 인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볼 때, 야웨 신명이 지닌 이름들이 많이 증가한 것은 일종의 멸망 직전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엘로힘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인명은 초기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다가(1명), 사무엘서에서 큰 증가폭을 보여주다가(24명), 다시 열왕기에서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11명). 전언하면, 사무엘서에서는 야웨 신명과 엘로힘 신명이 거의 유사한 비율로 인명에 포함된 반면(20명 vs. 24명), 열왕기에서는 엘로힘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인명은 감소하였지만 야웨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인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11명 vs. 64명), 이는 율법서에 나타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포로기 이후 시대의 역대기 역사서에 속한 에스라-느헤미야서에는 총 800개의 인명이 소개되고 있다. 이 중 앞서 언급된 이름들을 제외하면, 에스라서에서 304개, 느헤미야서에서 359개의 인명이 각각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인명들 가운데 중복된 이름들, 예를 들어 에스라 2장의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도 96명이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다. 두 명단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인명이 음운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각각 다르게 소개되고 있는 10명의 예는<sup>47</sup> 같은 자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48</sup> 이는 아마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동일한 귀환 명단 목록에 대한 각각 다른 자료를 지니고 서술하였을 것이라고 추정케 한다.

둘째, 총 800개의 이름 가운데 율법서, 예언서/신명기 역사서에 언급된 이름은 31개인 반면 새롭게 언급된 이름들의 수는 663개<sup>49</sup>이다. 이는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새로운 인물들을 위주로 기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

47 1) 바니(스 2:11)-빈누이(느 7:15), 2) 호다위야(스 2:40)-호드야(느 7:43), 3) 시아하(스 2:44)-시아(느 7:47), 4) 사블레(스 2:46)-살매(느 7:48), 5) 느부십(스 2:50)-느비스십(느 7:52), 6) 바슬롯(스 2:52)-바슬릿(느 7:54), 7) 하소베렛(스 2:55)-소베렛(느 7:57), 8) 브루다(스 2:55)-브리다(느 7:57), 9) 브게렛하스바임(스 2:57)-보게렛하스바임(느 7:59), 10) 아미(스 2:57)-아몬(느 7:59).

48 한 책에 동일 인물이 발음이 다르게 표기된 예는 반드시 다른 자료에서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이름이 같은 장, 심지어 같은 구절에서도 다르게 표기된 예는 이를 증거 한다(M.R. Golub, "Interchanges Between ךׁ, ךׁי, and ךׁי in Biblical Personal Names From the First Temple Period",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43/2(2017): 2-4). 그러나 동일 명단에서 10명이 다르게 발음된다는 점을 볼 때, 각기 다른 자료를 사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49 율법서, 신명기 역사서, 예언서에서 언급된 31개의 이름 외에 에스라서에서 언급되고 느헤미야서에서 다시 언급된 이름 106개 이름을 제외하면 663개가 에스라-느헤미야서에 언급된 새로운 이름이다.



편 역대기 역사서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등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을 위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기피하는 전통이 여전히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총 800개 이름 가운데 왕들의 이름은 9개, 제사장의 이름 72개, 예언자의 이름은 4개가 언급되었다. 앞서 살펴본 신명기 역사서에서 왕이 가장 많이 언급된 점(79명)과 대조를 이루며,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비교적 작은 수가 언급되었던 제사장의 인명의 숫자(14명)가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월등히 증가(5.1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명기 역사서가 왕정 중심으로 역사 기술된 반면, 역대기 역사서는 제사장 중심의 역사 기술이라는 점과 일맥 상통하는 점이다.

넷째, 에스라-느헤미야서에 언급된 인명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의 인명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명기 역사서에서 여성의 인명이 약 10% 정도 언급된 바와 비교하면 여성의 인명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남성 중심의 역사 서술이 포로기 이후 시대에 더욱 심해졌거나, 제사장 중심의 역사 기술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포로기 이후 시대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 중심의 사회적 환경과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끊고자 하는 신앙 개혁 운동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형태론적으로 아람어의 영향이 나타난다. 총 800개 이름 중 앞서 언급된 이름을 제외하고 새롭게 언급된 663개의 이름 가운데 아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름들이 29개(에스라-19개,<sup>50</sup> 느헤미야-10개<sup>51</sup>)로, 전체 약 4.4% 나타난

---

50 하디다(2:42), 시하(2:43), 하수바(2:43), 시아하(2:44), 느고다(2:48), 옷사(2:49), 하그바(2:51), 므히다(2:52), 하르사(2:52), 시스라(2:53), 하디바(2:54), 브루다(2:55), 느고다(2:60), 아닥사스다(4:6), 에스라(7:1), 글리다(10:23), 아시사(10:27), 앓나(10:30), 스비내(10:43).

51 바야나(3:4), 그리다(8:7, 10:10), 미가(10:12), 빌하(10:24), 압다(11:17), 사하(11:21), 기스바(11:21), 미가(11:22), 아드나(12:15)

다. 이는 이전 시기에는 드문 것이지만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포로기 이후 시대의 아람어의 영향이 인명에서도 나타남을 가리킨다.

여섯째, 모르드개와 같이 바벨론 신의 이름을 담지한 이름들이 구약성서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바벨론의 영향력을 다 방면으로 연구할 수 있겠지만, 인명으로 보았을 때 그 영향력은 역대기 역사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sup>52</sup>

일곱째,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로 시작하는 이름은 10회, 여호-로 시작하는 이름은 2회(+1<sup>53</sup>), 엘-로 시작하는 이름은 21회가 발견된다. 한편 -야로 끝을 맺는 이름은 가장 많은 78회를 보여주는 반면 -야후로 끝을 맺는 이름은 발견되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다. -엘로 끝을 맺는 이름은 20회의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빈도수 분석을 통하여 포로기 이후 시대에 여호-로 시작되는 이름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고 (열왕기상하의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인명 비율 20%에서 2.3%로 줄어듦), 가장 큰 특징으로 -야후로 끝을 맺는 이름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구약성서 전체의 인명 가운데 -야후로 끝을 맺는 이름들이 발견되는 것과 이후 살펴보게 될 고고학적으로 후기 철기 시대 말까지 (주전 586년) -야후로 끝을 맺는 이름들이 발견된다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야후로 끝을 맺는 인명 사용이 포로기 이후에는 사라지고 -야로 통일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2 한편, 에스라-느헤미야서에 외국인들의 이름이 종종 등장한다. 이들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종교와 관련있는 신들을 담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은 '나부' 신을 담지하며 미드르닷(스 1:8, 4:7)은 '미드라' 신을 내포하고 있다.

53 여호-로 시작하지는 않으나 이름 중간에 -여호- 신명이 들어 있는 경우이다: 엘여호에네(스 8:4).

### 3. 고고학적 발견물에 언급된 인명

앞서 분석한 구약성서의 인명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성서 외적 자료에서 알려진 인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의하여 도장, 인장, 진흙 인장, 비문 등을 통하여 적지 않은 이름들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는 구약성서에 언급된 이름들도 있고, 구약성서에 나타나지 않는 이름들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 골루브(M.R. Golub)는 2012년까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인명에 대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66개 고고학적 장소에서 나온 382개 유물(비문, 도장, 인장)에서 712명의 인명이 발견되었다.<sup>54</sup> 이 인명들은 주전 10세기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것으로서 시대별로 그 분포와 특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인명 연구에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였으나, 1) 주전 10세기 이후부터 주전 6세기 초까지라는 연대적인 제한성을 두어, 주전 11세기 이전(초기 철기시대 이전)과 바벨론 시대 이후(주전 6세기 중반 이후)의 인명 연구를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2) 그녀의 자료는 2012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그 이후 추가적으로 알려진 인명들을 포함시켜야 하며,<sup>55</sup> 3) 고고학적 인명 자료가 큰 도시(예루살렘, 라기스, 아라드, 호르밧 우짜, 사마리아 등) 중심으로 알려졌다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sup>56</sup>

골루브의 연구 이후 추가적인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고고학적 인명들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총 여덟 지역에서 977개의 이름이 알려졌다: 페니키아 지

54 M.R. Golub, *윳글*(2014), 624-627.

55 그녀의 연구 이후에 추가적으로 인들이 고고학적 발굴에서 알려졌다. 추가해야 할 자료들은 최근 그 연구 결과가 출판된 텔 레호브 비문, 다윗성 비문, 오펔 지역 비문(히즈키야후, 아하즈, 이사야후), 키르벳 케이야파 비문(이쉬바알) 등이 있다.

56 구약성서 시대의 주요한 도시들 중심으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발굴도 제한성을 지닌 채 우리에게 알려진다. 따라서 고고학적 발굴 결과로 인하여 알려진 인명을 구약성서의 인명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보다 그 비율에 주목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역 4개, 아람 지역 2, 모압 지역 4, 암몬 지역 54, 블레셋 지역 46, 에돔 지역 11, (북)이스라엘 지역 122, (남)유다 734.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남유다이고, 북이스라엘 지역이 그 다음을 따른다. 977개의 이름 가운데 이스라엘인들이 거주하였던 지역에서 발견된 이름이 87.6%(856개)를 차지하여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이 발견되어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인명 연구가 성경의 다른 어떤 민족들의 인명 연구보다 자료적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은 다음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첫째, 이방 신명이 들어간 이름들이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된다. 바알이 들어간 이름이 20개, 호르가 포함된 이름이 4개(𐤇𐤍 또는 𐤇𐤍), 하닷 1개, 아레아흐 1개, 그모스 1개, 밀곰 1개, 얌이 1개, 모트 1개, 쉘메쉬 1개, 코스/쿠스 3개이다.<sup>57</sup> 이 중 고대 이스라엘인들 지역에서 발견된 이방 신명을 포함한 이름은 바알-12개(북이스라엘 지역-10개, 남유다 지역-2개<sup>58</sup>), 하닷/하다드-1개(북이스라엘 지역), 호르-4개(남유다 지역), 모트 1개(남유다 지역)이다. 이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방신들의 이름을 포함한 인명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가나안 신들 가운데 모트의 이름이 남유다 지역에서 소수 발견되었다. 다른 가나안 신들의 이름 얌, 아낫, 아세라, 아스다룻 등의 요소가 들어간 이름은 발견되지 않는 반면, 바알은 많이 발견된다. 이방 신들 가운데 가장 많은 용례가 바알인 것은 가나안 종교가 인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거나 아니면 야웨 하나님을 바알로 표현했을 수 있다.<sup>59</sup>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아람 신 하닷/하다드의 이름이 들어간 인명이 단에

57 M. R. Golub, *윗글*(2021).

58 남유다 지역에서 발견된 바알 신명을 포함한 인명은 모두 주전 10세 초 이전 시기에서만 발견된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바알 신명을 포함한 인명이 주전 8세기까지 발견된다.

59 몇 가지 예는 야웨 하나님을 바알로 표현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J.H. Tigay, *윗글*, 14. S. Ahituv, *Echoes from the Past: Hebrew and Cognate Inscriptions from the Biblical Period* (Jerusalem: Carta, 2008), 328.

서 발견된 것은 접경 지역의 특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집트 신 호루스의 이름인 호르를 포함한 인명 4개가 모두 남유다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이집트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스라엘 지역(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인명 가운데 모압신 그모스, 암몬신 밀곰, 에돔신 코스/쿠스 등 이방신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인명은 모두 이스라엘/유다 바깥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의 종교가 인명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견된 122개의 인명 가운데 야웨 신명 요소가 들어간 것은 31개(요: 4개, -요: 27개), 엘로힘 신명 요소가 들어간 것은 8개(엘: 7개, -엘: 1개)이다(표 2를 보라). 북이스라엘 지역의 특성 중 하나는 야웨 신명 요소 가운데 접두어 여호-로 시작하는 이름 또는 접미어 -야, -야후로 끝나는 이름은 지금까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약성서에서 접두어 여호-로 시작하거나 -야로 끝을 맺는 이름 가운데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발생한다. 한편, 어미 -요로 끝을 맺는 이름이 27개 발견되어 북이스라엘 지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름은 남유다 지역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이 또한 지역적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남유다 지역에서 발견된 734개 인명 가운데 야웨 신명 요소가 들어간 것은 291개(여호-27개, 요: 8개, -야: 12개, -야후: 244개), 엘로힘 신명 요소가 들어간 것은 55개(엘: 39개, -엘: 16개)로서 월등한 우세를 보여준다(약 5.3배). 이는 유다 지역에서 야웨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이름이 더욱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역에서 발견된 야웨 신명, 엘로힘 신명을 포함한 인명은 전체에서 약 45%(385개)를 차지한다. 이외 앞서 살펴본 바알

을 포함한 이방신들과 신적 명칭<sup>60</sup>까지 포함하게 될 때 전체 인명에서 신명 요소를 포함하는 인명의 비율이 52.1%(446개)를 차지하여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이든 신명을 자녀들의 이름에 포함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구약성서에 언급된 인명들 335개 이름과 비교하였을 때 (표1 참조),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이름이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인명 숫자와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야웨 신명 요소가 들어간 이름이 구약성서에서는 205개로 61.4%, 엘로힘 신명 요소가 들어간 이름이 129개로 38.6%를 차지하는 점을 볼 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인명에서 야웨 신명 요소가 더 많은 비율(83.7% vs. 16.3%)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인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남유다 지역에서만 발견된, -야후 어미를 지닌 것으로 총 244개 발견되어 전체의 63%가 넘는다(남유다 지역에서는 70.1%). 이는 구약성서의 인명 가운데 -야후 어미를 지닌 이름이 전체의 45%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수의 -야후 어미를 지닌 이름이 사용되었음을 추측케 한다. 이 비율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남유다 지역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인명의 비율과 유사하다.

표 2. 지역별 분석: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인명

	יהוה	יה	יהו	יהוה	יהו	אל	אל	בעל	소계/ 합계
북 이스라엘	0 (0%)	4 (8.2%)	0 (0%)	0 (0%)	27 (55.1%)	7 (14.3%)	1 (2%)	10 (20.4%)	49
신명요소 비율	33(67.3%)					8(16.3%)		10(20.4%)	

60 신적 명칭은 직접적으로 신명을 포함하지 않으나 신과 관련된 단어를 포함하는 이름이다. 신적 명칭 (שם, מלך, אה, אה, אה)을 포함한 이름들이 43개(북이스라엘 4개, 남유다 39개) 발견되었다.

	יהוה	יהו	יהי	יהוה	יהו	אל	אל	בעל	소계/ 합계
전체 대비 비율	0%	3.3%	0%	0%	22.1%	5.7%	0.8%	8.2%	122
남유다	27 (7.8%)	8 (2.3%)	12 (3.4%)	244 (70.1%)	0 (0%)	39 (11.2%)	16 (4.6%)	2 (0.6%)	348
신명요소 비율	291(47.7%)				55(15.8%)		2(0.2%)		
전체 대비 비율	3.7%	1.1%	1.6%	33.2%	0%	5.3%	2.2%	0.3%	734
합계	27	12	12	244	27	46	17	12	856

#### 4. 논의 및 결론

1) 표 3은 신명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구약성서의 인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야웨 신명을 포함하는 이름은 창세기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출애굽기에서 2회(요게벳, 여호수아)가 나타나고 레위기~신명기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전통은 신명기 역사서의 초기 역사서에서 나타나는데 소수의 예만(여호수아 0회, 사사기 3회(요아스, 요담, 미가)) 발견될 뿐이다. 야웨 신명이 인명에 점차 확대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준 책은 사무엘서로서 사무엘상에서 7회(요엘, 요나단, 요압, 여호수아, 아비아, 아히야, 스루야), 사무엘하에서 13회(요람, 요나담, 여호사밧, 여호나담, 요나단(여호나단)-2인, 아도니아, 스바다, 스라야, 브나야, 우리아, 여디디야, 브나야) 등장한다. 열왕기서에서는 좀 더 확장되어 야웨 신명이 인명에 나타나는데, 열왕기상에서 16회(요아스, 여호사밧-2인, 여호람, 아히야-2인, 스마야, 아비아, 아히야, 엘리야, 시드기야, 아하시야, 아사리아-2인, 오바다, 미가야), 열왕기하에서 48회(여호람/요람, 요아스, 요사갈, 요담, 요아, 요하난, 여호사밧, 여호나담, 여호이하스-2인, 여호세바, 여호야다, 여호사바드, 여호아

스, 여호앗단, 여호야김/엘리아김, 여호야긴, 아하시야, 아마샤, 아사랴/웃시아, 스기랴, 브가히야, 우리야, 스가리야, 아다야, 미가야, 아사야, 브다야, 맛다니아/시드기야, 스라야-2인, 느다니아, 아하시야, 아달라, 여골리아, 르말야, 히스기야, 힐기야-2인, 이사야, 요시아, 아살리아, 예레미야, 스바냐, 그달리아, 야아사니아) 나타난다.

이전 인명들과 달리 열왕기서에서는 -야후로 끝을 맺는 이름들이 19회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야후 어미를 지닌 이름은 그 이전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열왕기에서 등장하였다. 열왕기상에서는 4회, 열왕기하에서는 15회 언급되어 후대로 갈수록 -야후 이름이 점차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후기 철기 시대 말기(IA IIC- 주전 7-6세기 초)에 -야후로 끝을 맺는 이름들이 183회 발견되어 이전 시기인 주전 10세기에서 8세기까지 22회에 발견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여주면서 후대에 갈수록 확대되어 사용된 점과 유사성을 보여준다.

최근 한 연구에서 예레미야서에 언급된 92개의 인명 가운데 -야후로 끝을 맺는 이름들이 차지하는 전체 비율과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주전 7-6세기 초의 367개의 이름들 가운데 -야후로 끝을 맺는 이름들의 비율이 거의 동일함이 밝혀졌다.<sup>61</sup> 골루브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인명 목록들 가운데 남유다인들에 관한 것은 고고학적으로 거의 유사하며 북이스라엘인들과 관련된 것들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어, 성경의 인명 목록은 남유다인들의 것임을 알 수 있다.<sup>62</sup>

포로기 이후의 인명 분석을 통하여 야웨 신명이 인명에 포함되는 전통이

61 이전의 연구들은 -야후로 끝을 맺는 이름들이 후기 철기 시대(IA II, 주전 10-6세기 초)의 지배적인 이름이라고 주장되었으나(Andersen and Hess, *윳글*(2007), 10), Tigay 윳글(1986), Appendixes A-D., Albertz and Schmitt, 윳글(2012), 341, 508 table 5.7),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이름들을 시대별로 구분한 결과 좀더 좁혀 후기 철기 시대 말기(IA IIC-주전 7-6세기 초)의 특징임이 드러났다(M. R. Golub and S. J. Golani, "Judean Personal Names in the Book of Jeremiah in Light of Archaeological Evidence," *JSOT* 43.2(2019): 133-145., M. R. Golub, "What's in a Name? Personal Names in Ancient Israel and Judah," *BAR* 46/3(2020): 49-51).

62 M. R. Golub, 윳글(2017), 35-46.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에스라서에서 89회(요:- 10회, 여호-/여호:- 3회, -야: 76회), 느헤미야서 153회(요-14회, 여호:- 4회, -야: 137회) 등장한다. 후기 철기 시대 말기의 전통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주전 5세기 중반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차이점으로는 유다 왕정 말기 때 활발히 명명된 -야후의 이름이 포로기 이후 시대의 인명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스라-느헤미야서에서 1차례도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을 볼 때, -야후로 끝을 맺는 이름은 -야로 끝을 맺는 이름으로 통합된 것으로 여겨진다.<sup>63</sup>

2) 야웨 신명 요소가 들어간 이름 가운데 어미 יי로 끝나는 이름은 구약성서에서 오직 한 예만 찾을 수 있다(야호 ייחא, 삼하 6:3). 그러나 고고학적 발견물 가운데 יי로 끝나는 이름은 철기 시대에서 27개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견된 122개 중 י-로 끝을 맺는 이름이 22.1%를 차지하는 것이지만 구약성서에서 오직 하나의 예만 보여준 것은 구약성서가 남유다 중심으로 기술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표 3. 구약성서의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인명 분석

신명	신명 구분							전체 (새롭게) 언급된 인명 <sup>1</sup>
	יהוה					אלהים		
	יי	יהו-	יה-	יהו	יי	-אל	-אל	
창세기 (%2)	0	0	0	0	0	2 (0.6%)	16 (4.8%)	336

63 아직까지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시대의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명들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하여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구약성서의 책들의 인명과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신명	신명 구분							전체 (새롭게 언급된 인명) <sup>1</sup>
	יהוה					אלהים		
접두어/ 접미어	יְיָ	יְהוָה	יְהִי	יְהוִה	יְיִ	אֱלֹ-	אֱלֵ-	
출애굽기	1 (2.3%)	1 (2.3%)	0	0	0	5 (11.6%)	5 (11.6%)	43
레위기	0	0	0	0	0	0	0	2
민수기	0	0	0	0	0	11 (9.1%)	18 (14.9%)	121
신명기	0	0	0	0	0	0	0	03
소계	1 (0.2%)	1 (0.2%)	0	0	0	18 (3.6%)	39 (7.8%)	502
여호수아	0	0	0	0	0	0	1 (5.3%)	19
사사기	2 (4.9%)	0	0	1 (2.44%)	0	0	0	41
사무엘상	3 (4.9%)	1 (1.6%)	3 (4.9%)	0	0	4 (6.6%)	3 (4.9%)	61
사무엘하	2 (1.4%)	4 (2.9%)	7 (5.1%)	0	1 (0.7%)	12 (8.7%)	5 (3.6%)	138
열왕기상	1 (1.1%)	3 (3.2%)	8 (8.6%)	4 (4.3%)	0	4 (4.3%)	2 (2.2%)	93
열왕기하	6 (5.2%)	12 (10.3%)	15 (12.9%)	15 (12.9%)	0	4 (3.4%)	1 (0.9%)	116
소계	14 (3%)	20 (4.3%)	33 (7.1%)	19 (4.1%)	1 (0.2%)	24 (5.1%)	12 (2.6%)	468
에스라	10 (3.3%)	3 (1%)	76 (25%)	0	0	21 (6.9%)	20 (6.6%)	304
느헤미야	13 (3.6%)	4 (1.1%)	137 (38.2%)	0	0	5 (1.4%)	18 (5%)	359
소계	23 (3.5%)	7 (1.1%)	213 (32.1%)	0	0	26 (3.9%)	38 (5.7%)	663
중간합계	332 (38 + 28 + 246 + 19 + 1) (20.3%)					157 (68 + 89) (9.6%)		1633
합계	489 (29.9%)							

3) 엘로힘 신명을 포함하고 있는 인명은 창세기부터 등장하는데 총 18회 발견된다. 이를 포함하여 율법서 전체에서 엘로힘 신명을 포함하는 인명은 57회 등장한다. 초기 신명기 역사서인 여호수아·사사기에서는 통틀어 1회(웃니엘) 언급된 반면, 사무엘서부터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7회, 사무엘하 17회로 확대되어 사용되었다가 열왕기에서는 열왕기상 6회, 열왕기하 5회로 다시 감소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웨 신명을 포함하는 인명 전통이 좀 더 강하였기 때문이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엘로힘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인명들은 주전 10-8세기 시기에는 14회의 예가 발견되었고, 주전 7-6세기 초 시기에는 47회 발견되었다. 이는 전체 인명의 비율에서 각각 7.1%,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율법서의 11.4%, 신명기 역사서의 7.7%, 역대기 역사서의 9.6%와 비교된다. 주전 10-6세기 초의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 열왕기서에서는 좀 더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 (왕상: 6.5%, 왕하: 4.3%). 에스라서에서는 엘로힘 신명을 포함한 인명이 41회(전체의 13.5%), 느헤미야서에서는 23회(전체의 6.4%) 등장한 것을 볼 때 포로기 이후 시대에 이 전통은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시대별 분석: 고고학적 발견물의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인명(Golub 2014: Table 4)<sup>64</sup>

	יהוה	יה	י	אל	בעל	신적명칭	다른 신이름	인명 전체수
주전 10-8세기	22 (11.2%) <sup>4</sup>	2 (1%)	31 (15.7%)	14 (7.1%)	10 (5.1%)	19 (9.6%)	5 (2.5%)	197
소계	55 (27.9%)			14 (7.1%)	10 (5.1%)	19 (9.6%)	5 (2.5%)	197

64 이 자료에서 다루는 전체 인명 수 이후 추가적인 발굴을 통하여 알려진 이름들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인명 수는 712개이다(M.R. Golub, 윗글(2014), 627). 그러나 고고학적 시대 구분이 알려지지 않은 인명 47개를 제외하면, 시대를 구분하여 알려진 인명 수는

	יהו	יה	י	אל	בעל	신적명칭	다른 신이름	인명 전체수
주전 7-6세기 초	183 (38.8%)	4 (0.8%)	1 (0.2%)	47 (10%)	7 (1.5%)	29 (6.1%)	2 (0.4%)	472
소계	188 (39.8%)			47 (10%)	7 (1.5%)	29 (6.1%)	2 (0.4%)	472
중계	205	6	32	61	17	48	7	669
합계	243 (36.3%)			61 (9.1%)	17 (2.5%)	48 (7.2%)	7 (1%)	669

4) 야웨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이름과 엘로힘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이름 간의 비율 추이 살펴보면 먼저, 율법서에서는 엘로힘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이름이 야웨 신명 요소에 비하여 월등한 점유율(28.5배)을 차지한다. 신명기 역사서에 언급된 두 신명 요소의 비율은 각각 18.7%(야웨 신명 요소 포함 인명), 7.7%(엘로힘 신명 요소 포함 인명)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역전되어, 야웨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이름이 엘로힘 신명 요소 포함 인명보다 2.4배 많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신명기 역사서의 책별로 그 비율을 살펴보면(여호수아사사기서에서는 숫자가 너무 미미하기에 큰 의미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사무엘서에서는 엘로힘 신명 요소를 지닌 이름이 더 많으며(1.1배), 열왕기서에서 야웨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이름이 처음으로 엘로힘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이름보다 우세하게 나타난다(5.8배). 야웨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이름이 신명기 역사서에 언급된 전체 인명 가운데 거의 20% 가까운 비율은 의미 있는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신명기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 열왕기서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

---

669개이다. 한편 이 숫자는 표2에 나타난 전체 숫자 856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669개는 2012년까지 고고학적으로 알려진 이름들이며 856개는 현재까지 알려진 이름들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856개의 이름을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구약성서의 이름의 흐름과 비교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2021년 자료에는 그러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M.R. Golub, 윗글(2021)). 본 연구에서 변화의 추이를 구약성서의 인명과 비율을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역대기 역사서(에스라-느헤미야)에서도 야웨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이름이 엘로힘 신명 요소보다 더 우세하여(3.8배) 포로기 이전의 전통이 계속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야웨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이름이 더 우세한 전통은 열왕기부터 에스라-느헤미야서까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를 고고학적인 발견물에서 발견된 인명과 비교해 보면, 주전 10-8세기 까지 야웨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이름과 엘로힘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이름이 각각 27.9%, 7.1%를 차지하며 야웨 신명을 포함한 이름이 약 3.9배 높으며, 주전 7-6세기 초까지 기간에는 야웨 신명을 포함한 이름이 엘로힘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이름보다 4배 더 많다(188 vs. 47). 이와 같은 수치는 고고학적 증거가 구약성서의 책 가운데 율법서와 신명기 역사서의 초중반(여호수아-사무엘서)까지는 부합하지 않고 후반인 열왕기서와 유사성이 발견되며, 역대기 역사서와도 부합함을 보여준다.

5) 율법서는 역사비평학 연구로 대체적으로 문서설에 기반을 두어 이해를 하고 있다.<sup>65</sup>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그 시대에서 이해하기보다 그것을 기록하거나 편집하는 시대 또는 그 과정을 중심으로 이해하려 한다.<sup>66</sup> 이에 대한 근거로 이른바 반역사적인(anachronistic) 것 즉, 후대에 와서야 등장하게 된 존재들(밧단 아람, 블레셋, 낙타, 왕 등)이 율법서에 기록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 힘입어 율법서의 내용은 역사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문학작품, 신화, 서사 등으로 저작 또는 편집 시대인 주전 1천년대, 특히 요시

65 이형원, 「성서비평학 입문」 (서울: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5), 81-115., 제임스 L. 쿨걸, 「하버드대 유대인 학자가 쓴 구약성서개론」 (김구원/강신일 공역), (서울: CLC, 2011), 455-486., R. E. 프리드만, 「누가 성서를 기록했는가」 (이사야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8), . 빅터 해밀턴, 「오경연구」 (강성열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9), 86-88, 116-116, 139-142.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U. 키수토, 「반문서설」 (배제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 1985)를 보라.

66 이스라엘 핑켈스타인 & 닐 애서 실버먼,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오성환 역), (서울: 까치, 2002), 제임스 A. 샌더스, 「토라와 정경」 (박원일/유연희 공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13).

야 시대 또는 포로기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sup>67</sup>

율법서 전체의 내용을 주전 1천년대의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주전 2천년대 즉, 율법서 배경이 되는 시대로 이해할 것인지는 논의할 사항이다.

여섯 단계에 걸쳐진 성경의 형성 단계 가운데 율법서의 내용 즉, 말씀/사건 단계포함한 성경의 형성 과정을 여섯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율법서 내용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2천년대의 상황이며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계약 체결 사항, 가족 내의 관습, 종의 가격 등은 주전 2천년대의 상황에서 적합함이 알려졌다.<sup>68</sup>

지금까지 고고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야웨 신명을 지닌 인명은 후기 철기 시대(주전 10-6세기 초)에 발견되며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명을 포함한 인명들은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1천년대(주전 10-6세기 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시기에 유행하였던 야웨 신명 요소를 포함한 이름을 율법서가 거의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고고학적으로도 인명이 확인된다는 점은 율법서의 내용이 고대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전 10세기부터 성경에서도 고고학적 발견물에서도 야웨 신명이 들어간 예가 발견되는데 만약 창세기 본문이 주전 10세기 이후의 문서라고 한다면 그러한 반향은 인명 분석으로 살펴봐왔을 때 합당하지 않다. 창세기에는 야웨 이름이 165회 언급되어 있고 출애굽기의 구절과 상충되는

67 핑켈스타인/실버먼, 윗글(2002), 41-91., I. Finkelstein, "Patriarchs, Exodus, Conquest: Fact or Fiction?", Pp. 42-51 in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Israel: Debating Archaeology and the History of Early Israel*, A. Mazar and I. Finkelstein, (ed.) by B.B. Schmidt (Leiden: Brill, 2007).

68 A. Mazar, "The Patriarchs, Exodus, and Conquest Narratives in Light of Archaeology", Pp. 57-59 in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Israel: Debating Archaeology and the History of Early Israel*, A. Mazar and I. Finkelstein, (ed.) by B.B. Schmidt (Leiden: Brill, 2007), K. A. Kitchen, *Ancient Orient and Old Testament* (Chicago: Inter-Varsity Press, 1966).

부분도 있으나<sup>69</sup>, 창세기의 내용의 주요 인물 중 야웨 신명이 들어간 이름은 아무도 없다. 원역사의 인물뿐만 아니라 족장, 열 두 지파의 기원이 되는 야곱의 열 두 아들 가운데서 야웨 신명을 담보한 이름이 없다는 것은 요시야 시대 또는 포로기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인명 분석은 창세기의 본문이 비록 후대의 기술 또는 편집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고대 본문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전 10-6세기 초의 고고학적 발견물을 통하여 알려진 인명의 신명 요소 분석은 율법서보다는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와 유사성을 보여주며, 좀 더 정확하게는 열왕기서와 에스라-느헤미야서와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한 통시적 분석과 구약성서의 인명과의 비교를 위하여 주전 10세기 이전 시대와 주전 6세기 이후의 고고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인명들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후구, “성경의 인명에 대한 고찰”, 『성경과 이스라엘』 제13호(2021): 8-13.  
 권성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바로 알기”, 『성경과 이스라엘』 12호(2021): 12-16.  
 남풍현, “한국인의 이름의 변천”, 『새국어생활』 1-1(1991): 57-75.  
 마영미, “이름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중국조선어문』 6(2010): 11-15.  
 민영진, “구약 각 책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원문연구』 34(2014), 55-82.  
 박건숙, “사람 이름의 의미 자질 연구”, 『한국어 의미학』 37(2012): 159-182.  
 유윤종, “출애굽기 1:1-15:21에 나타난 이름의 문학적 및 신학적 의미”, 『성경원문연구』

69 창 4:26에서는 여호와와 이름의 비로소 처음 불렀다고 되어 있으며 족장 역사에서도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출 3:13-15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처음 알려주는 것처럼 새롭게 알려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윤종, 윗글, 14를 보라.

- 구」 41(2017): 7-28.
- 이보림, “히브리어 성서의 인명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3(2016): 373-393.
- 이복규, “한국인의 이름에 대하여”, 『온지학회』 16(2007): 363-388.
- 이정선,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이름 정책과 이름의 변화 양상들” 『역사민속학』 49(2015): 87-120.
- 이형원, 『성서비평학 입문』 (서울: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5).
- 마이클 데이비드 쿠건, 『우가랏 신화의 세계』 (유선명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2).  
원제 Coogan, Michael David, *Stories From Ancient Canaan* (Louisville: The Westminster Press, 1978).
- 빅터 해밀턴, 『오경연구』 (강성열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9). 원제 Hamilton, Victor P., *Handbook on the Pentateuch*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2005).
- 이스라엘 핑켈스타인/닐 애셔 실버먼,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오성환 역), (서울: 까치글방, 2002). 원제 Finkelstein, Israel/Silberman, Niel Asher., *The Bible Unearthed: Archaeology's New Version of Ancient Israel and the Origin of Its Sacred Texts* (New York: Free Press, 2001).
- 제임스 A. 샌더스, 『토라와 정경』 (박원일/유연희 공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13). 원제 Sanders, James A., *Torah and Canon* (Eugene, Or: Wipf & Stock Publishers, 2005).
- 제임스 L. 쿠겔, 『하버드대 유대인 학자가 쓴 구약성서개론』 (김구원/강신일 공역), (서울: CLC, 2011). 원제 Kugel, James L., *How to Read the Bible* (New York: Free Press, 2007).
- U. 카수토, 『반문서설』 (배제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 1985). 원제 Cassuto, U., *Documentary Hypothesis* (Jerusalem: Magness Press, 1961)., Archer Jr., Cleason L., *A Survey of Old Testament Introduction* (Chicago: Moody Press, 1964).
- R. E. 프리드만, 『누가 성서를 기록했는가』 (이사야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8). 원제 Friedman, Richard Elliott., *Who Wrote the Bible*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7).



- Ahituv, S. *Echoes from the Past: Hebrew and Cognate Inscriptions from the Biblical Period*. (Jerusalem: Carta, 2008).
- Ahituv, S. and Mazar, A. "The Inscriptions from Tel Rehov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Script and Writing during Iron Age IIA," Pp. 36-68, 189-203 in E. Eshel, See, *I Will Bring a Scroll Recounting What Befell Me' (PS 40-8) : Epigraphy and Daily Life from the Bible to the Talmud. Dedicated to the Memory of Professor Hanan Eshel*, (Vandenhoeck & Ruprecht GmbH & Co KGM, 2014).
- Albertz, R. *Persönliche Frömmigkeit und offizielle Religion: Religionsinterner Pluralismus in Israel und Babylon* (Stuttgart: Calwer Verlag, 1978).
- Andersen, F. I., and Hess, R. S. *Names in the Study of Biblical History: David, Yhwh Names, and the Role of Personal Names* (Melbourne: Australian Institute of Archaeology, 2007).
- Bailey, N.A. *Proper Names in the Bible: Translation and Transliteration Issues* (Word & Deed, 2007).
- Barry III, H. and Jackson, J.J. "Names in the Bible," *Names* 55.4 (2007): 372-378.
- Clines, David, J.A. (ed.)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IX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16).
- Clines, David, J.A. "Mordecai" in *ABD* Vol. 4(1990): 903-904.
- Fowler, J. D. *Theophoric Personal Names in Ancient Hebrew: A Comparative Study*. (Sheffield: JSOT, 1988).
- Garfinkel, Y., M.R. Golub, H. Misgav and S. Ganor. 'The 'Išba'al Inscription from Khirbet Qeiyafa', *BASOR* 373 (2015), 217-33.
- Golub, M.R.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Names in Israel and Transjordan during the Iron II', *JAOS* 134:4 (2014), 621-42.
- Golub, M.R. "Ethnic Characteristics in Theophoric Personal Names Found in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Land of Israel during the First Temple Period," *Language Studies* 16(2015): 101-120 (Hebrew).

- Golub, M.R. ‘The Element šlm in Hebrew Personal Names in the Land of Israel during the Iron Age II: Archaeological and Biblical Sources,’ *VT* 65(2015), 567-87.
- Golub, M.R. “Israelite and Judean Theophoric Personal Names in the Hebrew Bible in the Light of the Archaeological Evidence,” *ANES* 54(2017) 35-46.
- Golub, M.R. “Interchanges Between יהו, יה, and יי in Biblical Personal Names From the First Temple Period,”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43/2(2017): 1-6.
- Golub, M.R. “What’s in a Name? Personal Names in Ancient Israel and Judah” . *BAR* 46/3(2020): 46-51.
- Golub, M.R. 2021. Onomasticon.net: Personal Names from the Iron II Southern Levant, <http://www.onomasticon.net>.
- Golub, M.R. and Golani, “Judean Personal Names in the Book of Jeremiah in Light of Archaeological Evidence,” *JSOT* 43,2(2019): 133-145.
- Gray, G.B. *Studies in Hebrew Proper Names* (London: A. and C. Black, 1896).
- Hofstede, G. *Culture’s Consequences* (Thousand Oaks, CA: Sage, 2001).
- Kitchen, K. A. *Ancient Orient and Old Testament* (Chicago: Inter-Varsity Press, 1966).
- Klingbeil, M. G., Hasel, M. G., Garfinkel, Y. and Petruk, N. H. “Four Judean Bullae from the 2014 Season at Tel Lachish,” *BASOR* 381(2019): 41-56.
- Layton, S. C. *Archaic Features of Canaanite Personal Names in the Hebrew Bible* (Atlanta: Scholars Press, 1990).
- Mandelkern, S. *Veteris Testamenti Concordantiae Hebraicae atque Chaldaicae*. 9th ed. (Jerusalem-Tel Aviv: Schocken, 1972).
- Mazar, A. and Finkelstein, I.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Israel: Debating Archaeology and the History of Early Israel*, (ed.) by B.B. Schimidt (Leiden: Brill, 2007).
- McCarter, P.K., Bunimovitz, S. and Lederman, Z, “An Archaic Baʿl Inscription from Tel Beth-Shemesh,” *TA* 38(2011), 179-193.
- Mykytiuk, L. “Archaeology Confirms 50 Real People in the Bible,” *BAR* 40/2(2014).

- Mykytiuk, L. "Archaeology Confirms 3 More Bible People," *BAR* 43.3(2017): 48-52.
- Noth, M. *Die Israelitischen Personennamen im Rahmen der Gemeinsemitischen Namengebung* (Stuttgart: Kohlhammer, 1928).
- Odelain, R. and Segineau, R. *Dictionary of Proper Names and Places in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1981).
- Rowley, H.H. *Short Dictionary of Bible Names* (New York: Basic Books, 1968).
- Schuster, R. "Proto-Canaanite Inscription Found in Israel Has Experts Squabbling Over Its Meaning." 출처: <https://www.haaretz.com/archaeology/experts-spar-over-what-the-jerubbaal-inscription-really-says-1.10033477?fbclid=IwAR2I5Sfia-A93MTu4lKgKyq4lbuFr2VMii-WOoFREa0B3htt2mOjtbStf1g>. (2021년 8월 2일 접속).
- Schuster, R. "Proto-Canaanite Inscription Found in Israel Has Experts Squabbling Over Its Meaning." 출처: <https://www.haaretz.com/archaeology/experts-spar-over-what-the-jerubbaal-inscription-really-says-1.10033477?fbclid=IwAR2I5Sfia-A93MTu4lKgKyq4lbuFr2VMii-WOoFREa0B3htt2mOjtbStf1g>. (2021년 8월 2일 접속).
- Tercatin, R. "3,000-year-old inscription bearing name of biblical judge found in Israel." 출처: <https://www.jpost.com/archaeology/3000-year-old-inscription-bearing-name-of-biblical-judge-found-in-israel-673576> (2021년 7월 12일 접속).
- Tigay, J. H.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Israelite Religion in the Light of Hebrew Inscriptions* (Atlanta: Scholars Press, 1986).
- Zadok, R. *The Pre-Hellenistic Israelite Anthroponymy and Prosopography* (Leuven: Peeters, 1988).

## 검색어

인명

신적 요소

율법서

신명기 역사서

에스라-느헤미야

## A Study of Change of Personal Names in the Old Testament

Hoo-Goo Kang

Seoul Jangsin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personal names in the Hebrew Bible which include divine elements (Yeho-, Yo-, -yah, -yahu, El-, -el). Comparing with the names known from the archaeological findings (seals, seal impressions, bullae, inscription, etc.), it analyzes them to understand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examine the change of biblical personal names with divine elements, this study analyzes all personal names in Torah, Deuteronomistic historical Books, and Books of Ezra-Nehemiah and compare the results with 977 names known from archaeological findings in the Iron Age. Its outcomes convey the following conclusions:

- 1) Even though personal names with the general noun for god Elohim ele-

ment do not yield prominent characteristic changes, and those with the proper noun Yahweh element are few in Torah and in Deuteronomistic Books, their occurrences increase when it comes to late period. Yet the observation that names with Yahweh element were widely used in post-exilic period reveals an anachronic understanding of Torah that they reflect situations of the late periods. In the analysis of personal names in the Hebrew Bible, Torah can rather be understood as the earlier phase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names with divine element of Yahweh.

2) If we comp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biblical names in the Old Testament with those known from archaeological findings, it can be said that the Old Testament represents the central role of southern Judah.

3) The analysis of the ratio of name changes with Yahweh elements and those with Elohim elements indicates that in Torah, names with Elohim elements outstandingly occupy more than those with Yahweh elements (28.5 times); in Deuteronomistic books, the ratio is converted (18.7%- names with Yahweh elements vs. 7.7%- names with Elohim elements); while in the book of Ezra-Nehemiah the latter, Elohim elements, is less than the former, Yahweh elements (3.8 times). To compare with names known archaeologically, we discover that the archaeological evidences of the Iron Age match not with names from Torah, nor those from the earlier books of Deuteronomistic History (Joshua-Judges-Samuel), but rather with names of the book of Kings and also correspond with those of the book of Ezra-Nehemiah.

## Keywords

Personal Name

Divine element

Torah

Deuteronomistic Historical Book

Book of Ezra-Nehemiah

- 투고일: 2021년 9월 22일
- 심사일: 2021년 11월 13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20일